

지구촌 가난한 주민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전하다

제36회 아산상 ③ | 사회봉사상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지구촌나눔운동 직원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진출한 한국 대형마트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유목민 마을인 자르갈란트에서 생산한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 2002년 시작한 ‘가축은행’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젖소 구입 비용을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가축은행을 통해 소득이 높아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대부분의 원조사업은 운영 단체가 손을 떼면 사업이 잘 안되는데, 자르갈란트 지역은 스스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내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도 짓고 있어요. 이처럼 개발협력사업은 원조나 구호활동이 아니라 현지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이사장은 자립을 강조한다.

암소는행으로 4,000가정의 자립 기틀 마련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설립 이후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빈곤 극복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베트남 농가 부가수입의 약 70%가 축산을 통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암소 구입비를 1% 금리로 대출해주고, 3년 후 대출금이 상환되면 이를 다른 농가의 암소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순환형 소액대부사업인 ‘암소는행’ 사업을 진행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암소는행 사업으로 베트남의 영세농민, 장애인 등 약 4,000가구에 5,200마리의 암소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구촌나눔운동의 암소은행에 참여한 베트남 현지 주민.



몽골 가축은행 사업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현지 주민.

2002년부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자르갈란트 지역의 가난한 유목민들에게 젖소를 지원하는 ‘가축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건초와 사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료은행’ 사업도 함께 펼쳐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우수품종 젖소의 인공수정과 착유기 등 기자재 지원, 축산농가 사료공급을 위한 공동농장 조성, 유제품 생산 공장 증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가공·포장·유통·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몽골의 축산업 발전에 힘썼다. 2023년에는 연면적 1,500㎡, 2층 규모의 ‘지역개발교육센터’를 설립해 몽골 전역을 대상으로 전문 축산인 양성, 주민 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현지 주민과 소통에 힘쓰다

지구촌나눔운동의 활동이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절차를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방식 덕분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고,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현지 파트너와 협의해 계획을 세운다.”고 말한다.

“오래 전에 베트남에 봉사단을 파견해 ‘문화 교류의 밤’을

주최했어요. 봉사단에서 부채춤, 사물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를 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청년들이 ‘교류의 밤’인데 왜 우리 문화는 없고 한국 문화만 있냐’고 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시다. 그래서 베트남 청년들의 공연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방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에서 직원들을 채용한 후 개발협력 사업의 실무자로 양성한다. 몽골에서는 현지인 실무자가 사업수행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 2012년 한국인 책임자로부터 사업소장직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몽골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 끼의 끼니를 채우는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을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26년간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자립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베트남, 몽골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케냐, 르완다, 동티모르, 미얀마, 태국, 에티오피아 등 8개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에 적합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지구촌의 가난한 주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

글 편집부